

[지평선 트리하우스 - 나무의 재발견]

[]

주제	트리하우스의 이해
대상	백혜원, 이명경, 김민지, 이해민, 조이랑, 장예람, 최지현
일시 및 장소	2019년 3월 21일(목) 14:50 ~ 16:20. 장소: 미즈노씨 트리하우스 신기록 공방
내용	트리하우스 구성 및 강의

* 활동 내용

<p>◦ 신기록 공방에서의 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정관념을 깨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"왜 꼭 그래야해?" 라는 질문으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새로이 봐보자. - 보는 눈을 길러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버리는 나뭇는 없다.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. 어떤 나뭇를 어떻게 쓸지 나뭇를 보는 눈을 기르자. - 트리 하우스의 첫단계 =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트리 하우스, 나뭇 위의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'설계'다. 어떻게 형태를 만들지 실내는 어떻게 할지 자신만의 색을 넣어서 만들어보자. ↳ 숙제: 자신만의 아지트를 설계해보기 <p>◦ 지평선의 트리 하우스 설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나무의 재발견'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이미 죽거나 쓰러진 나무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트리 하우스를 만든다. -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정소는 공예실 앞 잔디. 하리에 오는 높이의 작은 아지트를 각자 그려서 와보자. <p>◦ 미즈노씨 트리하우스 단방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트리하우스를 가까이서 구경하고, 신기록 공방에 직접 들어가 강의를 듣고, 그 앞의 정원을 걸으며, 아지트와 나뭇 소품들과 간접적인 구성이 인상적이다.
